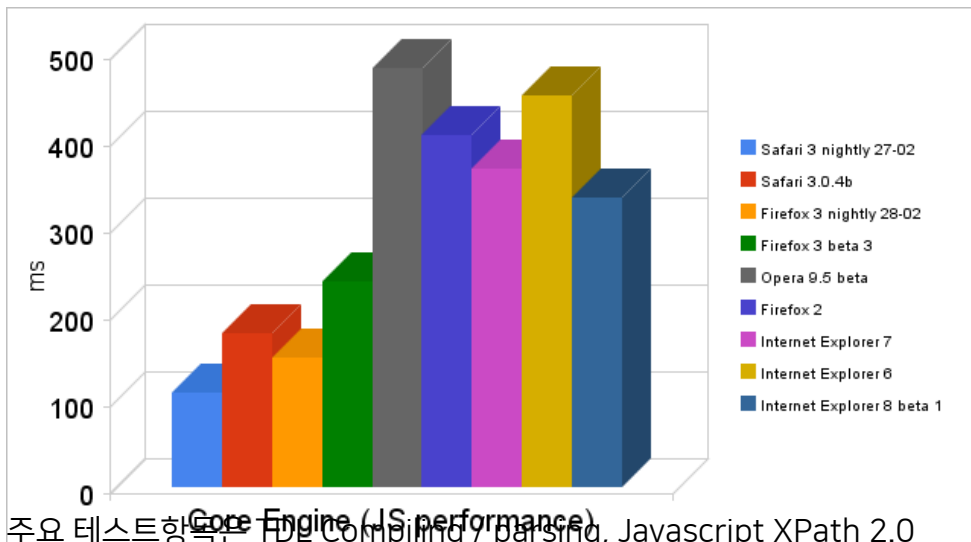


브라우저별 자바스크립트 및 렌더러 성능 측정

IE8의 베타판이 공개되어 화두가 되고있는 가운데, IE8은 파이어폭3와 한판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존하는 주요 브라우저와 앞으로 출시될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성능과 DOM 렌더링 성능을 측정한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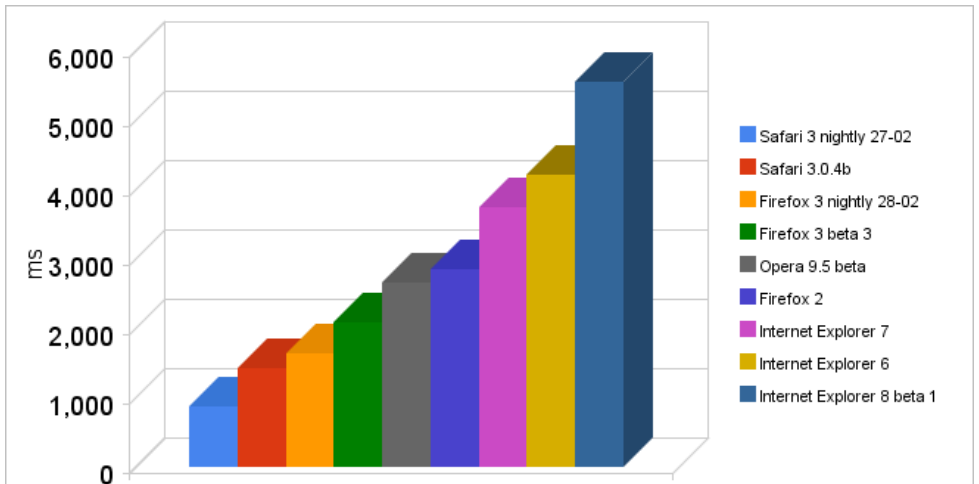
JavaScript Performance (Engine)



주요 테스트항목은 Core Engine (JS performance), Javascrpt XPath 2.0 Engine, XEL execution / event propagation이다. 파이어폭3 nightly 27-02버전의 측정결과는 매우 놀랍다. 파이어폭2에 비해 3배 빠른 자바스크립트 처리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IE역시 종전의 버전에

비해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리 놀라울 정도는 아니다. 이에 질세라 사파리3 브라우저 또한 경쟁력을 가질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성능부문에서 최강좌를 지켜온 오페라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다.(결과가 조금 의하한 부분이다.)

Render Performance (DOM)



주요 테스트 항목은 Rendering 1 accordion, Rendering 5 accordions, Gendering a listGrid, 등이다. 테스트 결과 사파리3 계열 브라우저가 가장 빠른 렌더링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어서 파이어폭3, 오페라9 브라우저가 뒤따르고 있다. Webkit 엔진을 사용하는 사파리3는 상대적으로 느린 드로잉 속도를 가진 IE계열 브라우저보다 5배이상 빠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페이스 반응이 빨라져 예전보다 더욱 가벼운것 처럼 느껴졌던 IE8은 최저속도를 기록했다.(IE7 모드로 테스트 했다고 한다.)

표준을 지향하겠다고 나선 IE8의 행보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성능차이가

위험 수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대로라면 IE의 점유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닐까? 보다 자세한 자료는 [구글닥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